손가락을 달이라 한다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⑨ 식심(識心)

〈원문〉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셨다.

"너희들이 연심(緣心)으로 법을 들으므로 이 법도 또한 반연(攀緣)된 것이라 법의 성품을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옆에 사람에게 보여 주거든 옆의 사람이 손가락을 인해 달을 보아야 할 것이거늘 만약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한다면 이 사람이 어찌 달만 잃을 뿐이리요. 손가락까지 잃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손가락을 밝은 달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어찌 손가락만 잃었을 뿐이리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도 모른다 하리라. 그 까닭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의 밝은 성품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모르는 탓이니 너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약 나의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이라 한다면 마땅히 분별하는 음성을 떠나서도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하리라. 마치 어떤 나그네가 여정(旅亭)에 기숙(寄宿)할 적에 잠깐 있다가는 문득 가는 것이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거니와 여정 주인은 나그네가 아닌 주인이므로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니라. 이것도 그와 같아서 참으로 너의 마음이라면 갈 데가 없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음성을 여의고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느냐?"

〈강해〉

부처님이 아난에게 연심으로 듣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고 일러주신다. 연심이란 쉽게 말하면 보고 듣는 객관 대상에 대하여 분별하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 식심(識心)은 참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음식의 맛을 말로 설명해 주면 달다 쓰다 하는 맛에 대한 언어적 개념은 이해되지만, 말로 설명하는 것이 맛 자체는 아닌 것처럼 연심으로 법을 듣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란 말은 경전 속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표월지 도해벌(標月指 度海筏)' 이라 하여 때로는 뗏목에 비유하기도 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은 달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느냐?"는 문책은 중생의 미혹을 질책하는 말이다.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말이 있다. 밖으로 반연되는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안으로 자신의 성품 자리를 비추어 보라는 말이다. 청매인오(靑梅印悟(1548~1623)의 〈십무익송(十無益頌)〉에도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경전을 보아도 소용없다(心不返照 看經無益)"는 말이 나온다. 또 임제록에도 "그대는 말이 떨어지면 곧 회광반조할 것이며, 더 이상 다른 데서 구하지 말 것이니 이 몸과 마음이 부처나 조사와 더불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깨달음의 경지는 주객이 합일(合一)된 경지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없이 아는 지혜라 하여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게 된다고 한다. 무분별이란 달리 말해 지식의 경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청매의 또 다른 〈십이각시(十二覺詩)〉를 보면 깨달을 각(覺) 12개를 가지고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다.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을 깨닫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어찌 홀로 참된 깨달음이라 하리요.(覺非覺非覺無覺覺覺 覺覺非覺覺 豈獨名眞覺)"

부처님이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아난의 참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분별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라면 듣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냐는 뜻으로 말하면서 여행하는 나그네가 여정(여관)에 머물다 떠나지만, 집주인은 나그네가 아닌 주인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비유가 참 묘하다.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모두 나그네 신세라는 말이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유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깨달은 이를 고향을 찾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시불(詩佛) 왕유의 시에 고향 집 창가에 매화 핀 것 보았느냐고 묻는 시가 있다.

"그대가 고향에서 왔다니 / 응당 고향 소식 알겠군요 / 오던 날 우리 집 비단 창가에 / 매화꽃 핀 것 보았는지요 (君自故鄕來 應知故鄕事 來日綺窓前 寒梅着花未)"

〈반야불교연구원장〉

"밝은성품 운용은 그 성품 인식서 시작"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⑨ 비상비비상처해탈법

〈법화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 하나가 팔해탈이다. 팔해탈은 대적정문을 바탕으로 대자비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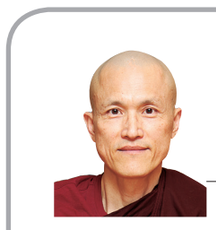
오늘은 8가지 중 비상비비상처해탈법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비상비비상처해탈은 8선정의 과정이다. 비상(非想)이란 본성의 상태를 말한다. 비비상(非非想)이란 본성도 아니고 심 · 식 · 의도 아닌 것을 말한다. 본성의 간극에 머무르다 보면 밝은성품이 생성된다. 그때 생성되는 밝은성품의 형질이 비비상(非非想)이다. 심(心)과 식(識)의 바탕도 비비상(非非想)이다.

식의 바탕은 맑고 투명하다. 심의 바탕은 텅 비워져 있다. 이 상태는 본성도 아니고 심 · 식 · 의도 아니다. 밝은성품이 본성과 합쳐진 상태이다. 본성으로 비상(非想)을 관(觀)하고 밝은성품과 심식의 바탕으로 비비상(非非想)의 상태를 관(觀)하는 것이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다. 비상비비상처정은 아나함과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비상비비상처정을 닦는 것은 진여심을 돈독하게 하고 생멸심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진여심은 본성, 각성, 밝은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소유처정에서는 본성을 돈독하게 주시할 수 있는 각성을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반야해탈도가 행해졌다. 비상비비상처정에서는 밝은성품의 운용과 자시무명의 제도를 목적으로 해서 해탈도가 진행된다. 밝은성품의 운용을 통해 생멸연기의 원인 중 하나인 자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이 과정에서 몸의 제도가 함께 이루어진다. 심식의 바탕을 인식함으로써 자시무명의 원인을 제도한다. 이로써 심(心)과 식(識)의 생멸적 습성이 제도된다.

밝은성품의 운용은 밝은성품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본성의 간극에서 머무르다 보면 밝은성품이 생성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인식한 밝은성품을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에너지들과 융화시켜가면서 밝은성품의 운용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장부 순화와 뼈 순화, 신경 순화와 세포 순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식의 바탕을 인식하는 것은 본성의 간극과 밝은성품의 성향이 함께 활용된다. 본성의 간극으로 식을 비춰보면서 식과 본성 사이의 틈을 인식하게 되면 식의 바탕이 드러나게 된다. 식의 바탕은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밝은성품으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때 몸 부위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층은 밝은성품의 층이다. 두 번째 층은 의지의 층이다. 세 번째 층은 외부 경계와 반응하는 층이다. 첫 번째 층은 미묘한 일렁임으로, 두 번째 층은 맑고 투명한 것으로, 세 번째 층은 생멸정보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 세 번째 층의 생멸정보와 기쁨이 외부 경계에 반응하면 그때 식이 발현된다. 두 번째 층의 의지가 작용하면 이때에도 식이 발현된다. 이때에는 의도성이 작용해서 식이 발현된다. 첫 번째 층의 밝은성품이 두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을 통과하면 그 순수성이 훼손된다. 두 번째 층을 통과하면서는 의지의 분별로 인해 음기와 양기로 변화되고 세 번째 층을 통과하면서는 경계와 반응해서 탐 · 진 · 치로 변화된다. 식의 바탕에서 두 번째 층을 이루고 있는 의지가 자시무명의 흔적이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의지를 각성으로 전환시키면 자시무명의 습성이 제도된다. 의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밝은성품에 치중했던 성향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시무명이 시작되었다. 본성의 간극으로 식의 상태를 비춰보지 않으면 식의 바탕이 드러나지 않는다. 식(識) 자체를 통해서 그 바탕을 보고자 하면 세 번째 층만 인식될 뿐, 두 번째 층과 첫 번째 층은 인식되지 않는다. 밝은성품을 운용해서 몸을 제도하는 것은 4선정 이후에 이루어진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⑨ 지금 그대로가 증득

찾으려는 마음을 버려라

사물이 실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특정 집단의 공감과 동의에 의해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사물이 실재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그 공감과 동의라는 것은 다시 시공간적인 제약을 둘 때만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사물은 시공간의 상태에 따라 아주 많은 변화를 가지기도 하고, 사물의 상태에 따라 시공간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니 현재에 대한 시각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물질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다른 사물로 변한다.

어디에 중심을 잡고 판단하느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중심이라고 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한 관찰자가 존재하므로, 정한 그 중심이 온전한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지금 그곳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이지, 전체에 대한 중심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가설을 세워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으니 정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았다 하여도 그것이 진실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사물 자체에 진실이 없다면 그 사물에 붙는 이름 또한 사실이어서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임시로 붙여 소통으로 삼고자 함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 단정하는 언어를 만들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꼭 그것이라고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존재할 수 없고, 꼭 그것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는 물질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공(空) · 무상(無相) · 무원(無願)을 말하고, 어떤 때는 여실제(如實際) · 법성(法性) · 법신(法身) · 열반(涅槃) · 이자성을 말하며, 혹은 불생불멸 (不生不滅) · 본래적정(本來寂靜) · 자성열반(自性涅槃) 등의 명사와 이념을 말하기도 하네. 하지만 사실은 모두 약간 다른 언어 문자를 빌려와 진여 구경의 실상을 표현한 것일 뿐이네."

물질로 표현 못하고 언어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지, 그것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언어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언어에 대해 생각하고 견해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이미지화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불교국가 어느 나라든지 가장 큰 법당에 들어가면 가운데 곱슬머리에 금빛으로 모셔져 있는 분이 계신다. 우리는 그 분을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이 부처님은 아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 하면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 불상 이외에 다른 분을 부처님이라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부처님 열반 후 수백 년 동안 불상이 없다가 간다라 지방에서 유래해 만든 형상도 그분을 본떠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의미도 그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지화 되어 있는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분이 정말 부처님입니까 하고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가. 만약 어느 특정한 형상과 의미를 부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 수행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부처님은 특정한 형상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님을 "모양으로 나타난 신체는 여래가 아니다. 음성도 또한 여래가 아니다."라는 말로 대신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 당신을 형상화하는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셨다. 다만 탑을 만드는 것만을 허락하셨다. 그 탑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등대와 같은 것이므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 등대는 길을 잃은 자들이 그 등대를 보고 그곳에 도착해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에 의지하여 바르게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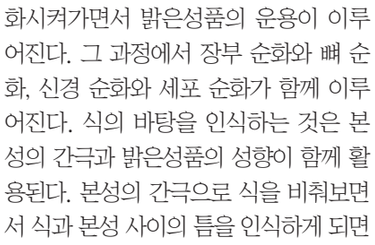
그러므로 그것을 형상과 언어로 표현하고 단정하고 이미지화한다면 그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표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구할 필요 없이 증득하고,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지금 그대로가 바로 증득인 줄을 깨닫고, 다른 의심을 거두어들이면 끝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본사 견본으로 …

소리비교 순간! 너무나 달라진 스님 염불소리에 혼란스러운 보살들이 법당으로 몰려오며 스님 염불소리다! 아니다! 테프 소리다! 확인하는 소동! …. 이때 비교만 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이유 …
권한다고 다 사준다면 재벌이 따로 없기 때문! …. 비교시 장난감차이 확인!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장기할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